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⑩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무공 스님은… 1977년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9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승가대학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국사 불국선원에서 첫 안거를 난 이후 대흥사, 내소사, 불갑사, 백장암, 백양사, 운문암, 해인사, 통도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백양사 재무국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용흥사 몽산선원장, 백양사 고불선원장 · 운문선원장으로 후학을 지도했다. 2020년부터 백양사 주지로 교구를 이끌고 있으며, 정관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행과 포교로 일구는 '모범백양'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백암산 자락에 자리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는 한국불교 수행 전통의 맥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고려 각진 국사와 조선시대 소요·편양·진묵 스님을 비롯해 근현대 만암·서옹·수산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식이 이곳에서 수행의 향기를 피워냈다. 특히 '북 마하연, 남 운문'이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백양사는 운문선원을 중심으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수행도량이다.

2019년 고불총림 해제 이후 백양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수행가풍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포교와 문화, 교육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2020년부터 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무공 스님은 "총림은 제도가 아니라 정신"이라며 "수행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6월 23일 백양사를 찾아 무공 스님에게 교구 운영 방향과 수행가풍 계승, 포교 비전, 백양사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 들었다.

Q 스님께서 그동안 교구를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어온 방향은 무엇입니까?

총림이 해제되고 어른 스님들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교구장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평생 선방에서 수행만 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여러 차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40년 넘게 살아온 백양사가 곧 제 집이라는 책임감으로 맡게 됐습니다.

당시 가장 큰 과제는 화합이었습니다. 오직 화합과 안정, 그리고 백양사가 지켜온 수행 전통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사전 예불과 조석예불, 공양과 울력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교구장인 제가 흐트러지면 본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3년 정도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임기부터는 포교에 진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행정진법회 등 다양한 포교와 불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총림 해제 이후 백양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적으로는 총림이 해제됐지만 백양사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백양사를 '고불총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림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수행과 교육, 공동체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을 운영하고 있고, 용흥사에서는 율원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강원 운영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수행의 정신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행공동체라는 백양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포교와 사회적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교구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수행제일 모범제일'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모범백양'이란 무엇입니까?

모범백양은 수행과 포교를 함께 실천하는 도량을 의미합니다. 만암 대종사께서 백양사를 이끌던 시절에는 수행도량이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한 포교를 펼친 사찰이었습니다. 포교사를 양성해 전국 각지로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수행도 철저했고 생활 또한 모범적이었습니다.



'도암당 인정 대사 진영'이 백양사의 노력으로 2024년 환지본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왼쪽)과 주지 무공 스님이 미국에서 돌아온 진영을 친견하는 모습.

최근 법화삼매참법을 복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화삼매참법과 점찰법, 낙화법은 본래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참회 수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겼지만 백양사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복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말사와의 소통과 협력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교구 운영은 본사와 말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승납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교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60여 개 말사 가운데 분담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찰이 있을 정도로 상당수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사 역시 넉넉하지 않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지 스님들이 교구 사정을 잘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천진암 사찰음식 템플스테이와 고불매 축제 등 문화포교도 활발합니다.

문화는 대중이 불교와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로입니다. 백양사에는 400년이 넘는 고불매가 있고, 천진암 사찰음식이라는 훌륭한 문화 자산도 있습니다.

고불매 축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봄에는 매화가, 가을에는 단풍이 사람들을 절로 오게 합니다. 먼저 절을 찾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문화포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 포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불교의 미래입니다.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광성의숙을 세우고 1946년 정광학원을 설립하며 교육 불사를 펼쳤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광학원은 백양사의 말사라 생각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릅니다. 또 마음캠프 등을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절과 친숙해지고 불교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만암 대종사를 비롯한 선대 스님들의 업적 연구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백양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불총림연구원을 출범하고 〈만암평전〉도 발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Q 임기 중 성보 환수에도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학인 시절 조사전 부전을 맡고 있을 때 조사 영정이 도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죄송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소임을 맡은 뒤 도암당 인정 대사 진영과 지장암 현왕도 환수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조사전을 정비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모두 47위 조사 영정을 새롭게 조성하는 불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 소실된 오백나한전 복원 불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원을 넘어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고 싶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현대 문명을 반영한 나한상을 통해 화엄의 세계관을 새롭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Q 앞으로 백양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수행과 포교 두 가지입니다. 백양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의 근본을 잃지 않는 사찰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불총림 정신입니다.

동시에 시대에 맞는 포교도 해야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AI시대가 오고 사회가 빠르게 바뀌어도 자기 근본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수행자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떤 변화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양사는 1400년 동안 수행과 전법의 등불을 지켜온 도량입니다. 앞으로도 수행제일의 가풍을 잃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열린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양사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공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원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수행과 포교, 문화와 교육의 길을 더욱 충실히 걸어가겠습니다.



백양사는 '고불총림'의 정신을 잇기 위해 선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안거에는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에 23명의 납자가 방부를 들였다.



오랜 숙원사업인 오백나한전 복원불사가 지난 5월 상량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오백나한상을 한 분 한 분 친견할 수 있는 현대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백양사 고불매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면 축제가 열려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고불매(古佛梅)는 '부처님의 옛 가르침을 기린다'는 뜻이다.



백양사는 아이들이 사찰과 불교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명상 중심의 캠프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백양아이 여름 명상캠프' 모습.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